

# ‘배추밭 스노보드’ 이상호 아시아 제패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한국 첫 금  
최보균 銀...평창 기대감 ‘쑥쑥’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상호**

- 출생 1995년 9월2일
- 소속 한국체대
- 주요 경력 및 수상

2017년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키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 금메달

2015년 국제스키연맹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금메달  
국제스키연맹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평행회전 동메달

2014년 국제스키연맹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은메달

연합뉴스

이상호(22·한국체대)가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상호는 19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의 데이네 뉴 슬라임 코스에서 열린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스키 스노보드 남자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35초 76으로 우승했다. 이상호의 금메달은 한국이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종목에서 따낸 첫 금메달이다.

최보균(26·상무)은 1분 36초 44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동메달은 1분 37초 14를 기록한 가미노 신스케(일본)에게 돌아갔다.

이상호는 1차 시기에서 51초 94를 기록해 2위 최보균을 0.08초 차로 따돌렸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 이상호는 43초 82로 가미노의 43초 75에 근소하게 뒤졌으나 1차 시기에서 앞섰던 격차를 유지하며 금메달을 확정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는 이상호는 이번 대회 금메달 획득으로 1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준비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 사북고등학교 출신으로 한국체대 재학 중인 이상호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4위에 오르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월드컵 최고 성적을 기록한 선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권유로 스노보드를 탄 이상호는 어린 시절 강원도 사북의 고랭지 배추밭을 개량한 눈썰매장을 주로 이용해 ‘배추밭 소년’이 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초등학교 3학년인 2004년부터 본격적인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상호는 2016-2017시즌 부쩍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월드컵 4위에 이어 올해도 월드컵에서 5위를 두 차례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정상권을 맴도는 기량을 선보였다.

이상호는 지난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겸 FIS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만에 열린 아시안게임 시상대 맨 위에 우뚝 서면서 평창올림픽 최고의 메달 유망주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열린 대회전은 올림픽 정식 종목은 아니다. 올림픽에서는 대회전과 비슷한 평행 대회전이 열린다. 대회전과 평행 대회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대회전은 1, 2차 시기 기록 합산으로 순위를 정하고 평행 대회전은 두 선수가 동시에 달려 기록을 비교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최보균, 김상겸(28·전남스키협회) 등 대표팀 내 다른 선수들의 기량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팀 내 경쟁을 통한 전체적인 전력 향상을 기대할 만하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상호가 월드컵, 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선수 최초로 메달 획득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일본 삿포로 데이네 경기장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남자 스노보드 대회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상호가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하나가 19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에서 합계 10언더파 282타로 우승한 뒤 우승컵을 머리에 이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m 이글 퍼트...장하나 ‘대역전 드라마’

LPGA 호주오픈 우승...시즌 첫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장하나(25)가 이글과 함께 새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다. 장하나의 19일 호주 애들레이드의 로열 애들레이드 골프장(파73)에서 열린 LPGA 투어 호주여자오픈에서 합계 10언더파 282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장하나의 이번 대회에서 흔들리지 않는 독심을 보여줬다. 2라운드에서 이븐파로 제자리걸음을 걸으며 공동 31위까지 밀렸던 장하나의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70타를 쳤다. 선두에 4타 뒤진 7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지만, 우승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장하나의 문자 그대로 ‘승부사’의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 라운드 첫 번째 홀인 1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했지만, 동요하지 않고 12번홀까지 파 행진을 계속했다. 그 사이 선두권 선수들은 스스로 무너져갔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였던 리제트 살라스(미국)는 버디 2개를 잡았지만, 5개의 보기를 기록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장하나에게 틈을 보였다.

장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살라스가 보기를 한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4)에서도 버디를 잡으며 공동선두로 치고 올라갔다. 그리고 17번홀(파5)에서 2온에 성공한 장하나의 15m가 넘는 이글퍼팅에 성공하면서 단독 선두 자리를 꿰찼다. 장하나의 마지막 18번홀(파

4)에선 버디를 잡으면서 우승을 자축했다.

후반 9홀에서만 이글 1개와 버디 3개를 잡으면서 5타를 줄였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차 뒤졌지만 4라운드에선 오히려 2위에 3타를 앞선 완벽한 우승이었다. 장하나의 올 시즌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2017년의 활약을 예고했다.

지난해 LPGA투어에서 3승을 기록한 장하나의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누구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시즌 초반에 터진 이른바 싱가포르 가방 사건 탓이다.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가 심해 한 달 넘도록 투어를 쉬었고, 올림픽 출전 티켓 경쟁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러나 장하나의 주저앉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푸른 챔피언십 우승으로 간재를 확인한 뒤 지난겨울을 어느 해보다 알차게 보냈다.

베트남에서 40일 동안 전지훈련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고, 쇼트게임 위주로 감각을 끌어올렸다.

장하나의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2차례 이상 메이저대회 우승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정삼급 선수로 올라서려면 메이저 타이틀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랭킹 1~5위 선수들은 하나같이 메이저대회 우승 트로피가 있다.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장하나의 호주여자오픈에서 LPGA투어 최고 선수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 /연합뉴스

## ‘연아 키즈’ 최다빈 4대륙 대회 5위

총점 182.41점...ISU 공인 개인 최고점

“ 챔피언이 나오는 마지막 그룹에서 경기한 게 정말 영광입니다. 잊지 못할 대회입니다.”

‘최다빈의 날’이었다. 연기를 마친 최다빈(17·수리고)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최다빈은 쇼트프로그램(61.62점), 프리스케이팅(116.92점), 총점(182.41점)에서 모두 ISU 공인 개인 최고점을 수립했다.

최다빈은 이를 바탕으로 여자싱글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8위를 했던 최다빈은 자신의 역대 최고 등수까지 찍었다.

역대 4대륙 대회에 나섰던 한국 선수를 따지면 최다빈은 김연아(2009년 우승), 김나영(2008년 4위), 박소연(2016년 4위)에 이어 4번째로 성적이 높다. 특히 최다빈이 올해 따낸 182.41점은 2009년 김연아가 우승할 때 작성한 189.07점에 이어 역대 2위의 점수다.

최다빈은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긴장해서 초반에 실수가 나왔는데 후반에 잘 만회할 수 있었다. 좋은 경기를 치렀다”고 웃음을 지었다.

그는 “첫 번째 점프가 가장 어려운 점프여서 그만큼 긴장이 됐고 실수가 나와서 당황했다”며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점프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역대 최고점을 작성한 소감에 대해선 “한국에서 열린다 보니 관객들이 호응을 많이 해주셨다. 그런 점이 심판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예술점수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프리스케이팅에서 마지막 그룹에 가서 연기한다는 게 영광이었다.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한 박소연(단국대) 대신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선 “체력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가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18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로 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프리스케이팅 경기에서 한국의 최다빈이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